

# 기온 뚝...유통가 '방한' 마케팅 뜨겁다

### 광주신세계, 12월5일까지 방한소품 특집전·아웃도어 60% 할인 이마트, 12월1일까지 난방용품 최대 30% 할인 '겨울 방한대전'

겨울 첫 동장군이 찾아오면서 각종 난방·방한용품 수요가 늘고 있다. 이마트는 이 같은 난방용품 수요에 맞춰 오는 12월1일까지 2주 동안 관련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겨울 방한대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 상품은 히터부터 전기요, 핫팩, 방한 의류 등이다. '일렉트로닉 베이직 히터'와 '전환일\*신일 TP 전기요' 등은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일부 내복과 수면하의 등을 2개 구매 하면 30% 할인해준다. 모든 핫팩 상품은 행사카드로 사면 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0월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마트 히터, 전기요, 보일러 등의 겨울 시즌 가전 매출은 2주 전(10월2일-8일) 대비 118%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기온이 뚝 떨어진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매출이 전년보다 16.5% 늘었고, 주로 여성 의류(22.1%), 아동(45.7%) 등이 신장률을 이끌었다.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에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 의류 매장에는 털 부츠가 등장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보온성과 멋을 동시에 잡을 수 양털 부츠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부츠, 로퍼, 샌들 등 신발 뿐만 아니라 털 소재의 의류, 액세서리, 실내용 슬리퍼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2월5일까지 진행되는 겨울 세일의 하나로, 지하 1층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겨울 방한소품 특집전'과 '아웃도어 인기 아우터 연합전'을 벌이고 있다. 네파, 블랙야크, 컬럼비아 등 인기 브랜드 의류를 40%에서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4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신관 지하 1층 '어그' 매장에서 팔릴 예정인 날씨에 인기를 끌고 있는 양털 소재 신발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치킨 이어 이번엔 햄버거 롯데리아 평균 4.1% 인상

롯데GRS가 운영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품 판매가격을 평균 4.1%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버거류 16종, 세트류 17종, 치킨류 12종, 디저트류 8종, 음료류 10종의 가격이 제품당 평균 200원 정도 오른다. 구체적으로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 단품은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세트 메뉴는 59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

롯데GRS는 이번 가격 인상이 최저임금 상승, 해외 물류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등 경영비용 증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외부 환경위험에 따른 가맹점 수익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맹점의 이해와 협의를 이룬 판매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와 버거킹 측은 모두 "현재로서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식품업계 전체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다른 업체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달 들어 고촌치킨, 동원참치, 하이네켄 제품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연합수

## 롯데마트 첨단점,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호재에 상권 잡기 나서

### 2달 간 개선공사 마치고 재개장 GAP농산물·저탄소 포장 확대

롯데마트 첨단점이 2달 동안 개선공사를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

지난 9월 롯데마트 수원점이 새단장을 마친 뒤 광주지역에서는 올해 두 번째 리뉴얼이 완료된다.

롯데마트 첨단점은 광주 첨단지구의 상권 변화에 맞춰 지난달 6일부터 개선공사를 벌인 뒤 25일부터 재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마트 첨단점 주변 상권은 2002년 9월 첫 개장 이후 큰 변화들이 있었다.

오는 2024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확정됐으며, 내년까지 4732세대 대규모 신규 주택단지 조성된다.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3지구 조성

도 상권 호재다.

롯데마트 빅데이터팀이 첨단점 고객 연령층을 조사해보니, 70% 이상이 40대 이하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전국 롯데마트 40대 고객 비중(50%)을 크게 웃돈다.

롯데마트 첨단점은 변한 상권에 따라 매장 개편을 결정했다.

젊은 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선호하는 냉동·냉동밀키트 매장은 50평 규모로 늘렸고, 반려동물 용품·신선식품 매장을 강화했다.

당일 수확해 배송하는 우수농산물관리(GAP)·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대폭 확대하고, 환경중시 경영(ESG)을 위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포장재 사용을 늘렸다.

와인·주류 전문매장 '와인&리큐어'와 건강·미용 매장인 '롭스 플러스'가 들어선 것도 눈에 띈다.

롯데쇼핑은 전국에 67개 남아있는 롭스 가두점을 내년까지 모두 없앤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대신 올해 5월 여수에서 처음 선보인 '숍인숍' 형태 '롭스 플러스'를 내년까지 매장을 2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특화공간 등이 마련된 첨단점 롭스 플러스는 116평 규모(383㎡)로 고객을 만난다.

주류 전문매장은 기존(14평)의 10배 수준인 140평 규모로 들어선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홈술족'을 겨냥한 '위스키 특화존' 조성이 특징이다. 국내 인기 양조장 11곳에서 만든 수제맥주 54종도 있다.

배효권 롯데마트 호남지역장은 "롯데마트 첨단점은 급변하는 상권과 고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이 찾아오고 싶은 매장을 만들고자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축협 유통사업본부, 2년 연속 해썬 인증



2년 연속 해썬 인증을 받은 광주시 광산구 평동 광주축협 유통사업본부 축산물 가공장.

### 광주 유일 한우 브랜드 운영

광주지역 유일 한우 브랜드 '무등골그린한우'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축협농협이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썬) 2년차 인증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축협 유통사업본부는 지난해 해썬 인증을 받은 뒤 유지 심사를 통과해 올해도 유지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식용란선별 포장업과 축산물가공업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주축협 유통사업본부는 작업장, 작업장, 제조기계 등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며 지난해 해썬 인증을 따냈다.

모든 제조과정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일련의 문

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품질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광주축협 대불배합사료분부는 15년 넘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위생·안전관리 해썬 인증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축협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해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됐다. 올해도 10월 말 기준 1위를 기록하면서 종합업적평가 5연패가 유력하다.

김호상 조합장은 "고품질 배합사료를 먹고 자란 광주 유일 한우 브랜드 '무등골그린한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코로나 19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지역 소비자뿐 아니라 군부대 급식에도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위드 코로나에 빨라진 크리스마스

### 롯데마트 12월1일까지 할인행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라 유통업계도 연말 분위기를 내며 '성탄 특수' 잡기에 들어갔다.

㈜광주신세계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국내 확산 뒤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조명'을 정문 앞에 조성했다.

광주신세계가 마련한 금빛 조명은 내년 1월9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1층 내부 광장은 신세계백화점 대표 캐릭터 '푸빌라'와 친구들로 성탄 분위기를 자아냈다. 광주신세계는 예년보다 한 달 먼저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 화려한 장식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작은 숲을 연상시키는 '크리스마스 포토존'도 마련됐다.

오는 12월5일까지 광주신세계는 '푸빌라와 함께하는 홀리데이 어드벤처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을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빌라 카카오톡 이모티콘, 패션 7% 할인권, 멤버십바 커피 이용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고 미니 트리와 솔방울 가랜드 등 인테리어 소품을 최대 10% 할인한다.

12월9일부터 15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 예약 할인 행사도 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